

## [아버지 칼럼] 여보 그제 무조건 미안해!

서정오 목사 / 페이지 수: 2

나는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남자는 권위적이고, 여자들은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하던 가정이었다. 식사를 할 때에도 큰 기침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며 밥을 먹었고, 어머니가 방에서 감상해서 식사를 하시는 것보다는 부엌에서 대강 때우실 때가 더 많았다. 저녁이 되어 잠자리를 준비하는 것 또한 당연히 어머니가 하실 일이었다. 그런 집안에서 자란 내가 결혼을 하자마자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다.

막 결혼한 아내가 저녁이 되어도 이불을 깔지 않는 것이었다. 물론 아침이 되어도 이불을 개지 않았다. 며칠을 내가 이불을 깔고, 이불을 개다가 드디어는 소리 질렀다.

“아니, 어찌된 여자가 이불도 안 깔아? 이불도 안 개?”

그 때 아내의 대답은 나를 더욱 당황케 만들었다.

“아니, 어떻게 연약한 여자를 보고 그 무거운 이불을 깔라고 하세요? 그런 것은 남자가 하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아내와 깊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자란 나와는 달리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아내는 비교적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가정 분위기에서 자랐다.

장인어른은 자상하기 이를 데 없었고, 그래서 무거운 이불을 여자가 내리고 올리기에는 힘든 것이라며 당신께서 다 하셨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다. 새벽에 일어나시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아궁이 불을 다시 지피고, 식어 버린 구들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장모님이 아침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물을 길어다 놓고, 부엌을 훈훈하게 만드셨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내가 나의 권위적인 행동에 대해 얼마나 못마땅했겠는가?

아내는 그래서 결혼 초기에 심히 견디기 어려워 했다. 나 하나 바라고 우리 집에 시집왔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그러했고, 시부모님들 또한 그런 생각을 했고, 거기에 시누이까지 함께 있었으니, 얼마나 어려웠을까? 게다가 그 때는 내가 가난한 신학생이어서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 담당해야 했으니, 그 고초는 더욱 고달프고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아내의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다. 모든 여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혼자만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때때로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사오정처럼 엉뚱한 소리만 했다. “이렇게 행복한데 뭐가 문제야? 행복에 겨워서 별 소릴 다 한다.”

아내가 첫 애를 낳고 너무 가난해서 미역국을 겨우 이틀인가를 먹이고는 그 다음에는 시래

기 국으로 때웠다. 사실, 아내는 미역국을 너무 좋아했다. 아내는 음식에 대한 특별한 미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 번 먹으면 다시는 반복해서 먹지를 않는 사람인데도 미역국만은 일주일 내내 먹어도 질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지금도 아내가 가장 잘 끓이는 국이 미역국이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미역국을 첫 애를 낳고 겨우 이틀인가를 먹고는 시래기 국으로 때웠으니, 그 마음속이 얼마나 서글프고 아팠을까? 눈물로 밥을 말아 섞어 먹곤 했다. 그런데도 나는 그 마음을 그 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얼마나 우매하고 우둔한 남편이었는지 모른다.

내년이면 벌써 우리가 결혼한지도 25주년이 된다. 이불 개는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을 처음 시작한 이래로 수도 없이 많은 이유로 우리는 서로 싸웠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많은 싸움의 원인들이 거의 대개는 하나같이 서로 자신의 잣대로 상대방을 재고 비판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모든 싸움들의 단 하나 해결의 열쇠도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 이해할 때 문제는 너무나 쉽게 풀렸다는 것이다.

요즘도 우리는 가끔 말다툼을 한다. 하지만, 수도 없이 해봤던 것들이기에 시작과 끝이 뻔하다. 끝을 서로 예측하고 있으니, 다투다가 웃고 말 때가 많다. 이해(understand)는 상대방이 '아래에'(under) '설'(stand)때에 가능하다는 말에 동감한다. 서로 상대를 이해하게 될 때, 싸움은 좀처럼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혹시 싸우는 일이 있다 해도 금방 싱겁게 끝나고 말 때가 많다.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요즘 나는 아내에게 그저 미안한 생각뿐이다. 좀 더 가슴이 넓은 이해심 많은 남편이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용서를 빈다.

“여보, 그저 무조건 미안해.”

\* 출처 : 두란노 아버지학교(<http://www.father.or.kr>)